isu

2023 SUMMER
VOL. 113

JiyongKim Exhibition, Space ISU, 2023

이슈를 잡아라
2023 이수챌린지페스타 3X3

이수 플레이리스트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 음악 공유해 줘!

이수 튜브
세상의 모든 여행

이수 테이블
스토리쉐프가 차려내는 식탁, 빙수 동서고금

스페셜 리포트
면역과 바이오의약

ISU PLACE
디자이너 브랜드 '지용킴'의 〈JiyongKim Exhibition〉

CONTENTS

04 Focus & News

08 Young ISU
공채 30기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12 이슈를 잡아라
2023 이수챌린지페스타 3X3

28 이수 플레이리스트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 음악 공유해 줘!
김현진 대리(이수시스템 전략사업팀)
김정환 대리(이수앱지스 생산지원팀)
송은진 사원(이수엑사켐 관리팀)

32 이수타그램
사진과 해시태그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박성호 사원(이수엑사켐 관리팀)
임연주 대리(이수AMC 공사관리팀)
양동훈 대리(이수시스템 HR서비스팀)

36 지금 이 순간, OTT
일상의 활력, 공감 콘텐츠 추천
한아린 사원(이수엑사켐 관리팀)
신동완 과장((주)이수 이팀)

40 이수튜브
유튜브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나
꿈틀~~ 깨어나는 여행 본능
세상의 모든 여행

46 이수 테이블
스토리쉐프가 차려내는 식탁
빙수 동서고금

52 스페셜 리포트
이수인의 심폐 확장 이슈
면역과 바이오의약

59 ISU PLACE
디자이너 브랜드 '지용킴'의 <JiyongKim Exhibition>

65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컬러링 응모작 소개

66 컬러링 테라피 및 엽서

COVER STORY

이수화학 폐근무복을 활용해 가방으로
변모시킨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다채로운 패브릭 작업과 설치를 통해 시간과
자연의 순리로 직조되는 지용킴의 세계
<JiyongKim Exhibition> 전이 8월 13일까지
스페이스 이수에서 개최된다.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23년 여름호 통권 113호

발행일	2023년 7월 21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김현중 02-590-6819
사보기자	이수화학(김찬희·안인찬)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이하연·이정구) 이수페타시스(이준경·한수진) 이수건설(한수진) 이수시스템(서준혁) 이수창업투자(김경문) 이수앱지스(양예슬) 이수엑사켐(박성호) 이수AMC(이홍휘)
제작디자인	LEE & LEE work shop 기획실장 이신우, 디자이너 유선영
인 쇄	LEE & LEE work shop

※이수그룹 사보는 친환경 FSC인증 펄프로 만든 용지를 사용해 제작합니다.

FSC인증은 국제산림관리협의회가 만든 친환경 인증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됩니다.

(주)이수

꿈을 나누는 미래, 이수와 함께!! 2023 공채 30기 신입사원 채용

세계 일류기업으로 나아가고자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이수그룹은 지난 7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입사원 입문과정을 가졌다. 2023년 공채 30기 신입사원으로 최종 선발된 17명은 반포 사옥 1층 강의장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한편 이수그룹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신입사원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 받았으며, 서류전형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무진 면접, CEO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수화학

2023년 임직원 소통교육 이수스페셜티케미컬과 함께

이수화학과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지난 5월 2일을 시작으로 3개월에 걸쳐 전 임직원 소통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소통교육은 경주 황룡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부서 간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17년 이후 시행되지 못한 소통교육은 2023년 5월 1일 인적분할 이후 다시 개최되어 남다른 의미가 있다. 양사의 원활한 업무 교류와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페타시스

제4공장 준공식 김상범 회장 외 70여 명 참석

지난 5월 4일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과 최창복 이수페타시스 대표이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수페타시스 제4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는 부지 1만 24㎡(3,032평), 연면적 1만 4,771㎡(4,468평)에 지상 3층 규모로 연구실 등 사무동과 고도화된 PCB 초기 공정 설비를 위한 제조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올해 7월부터 기존 대비 40% 이상 확대된 생산능력으로 연간 최대 2천억 원 이상의 매출 증대를 확보하게 된다. 이수페타시스는 제4공장 준공에 따라 자동화 공정 도입 및 물류 이동 합리화로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엄격한 품질관리로 고사양 PCB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수건설

인천 미추홀구 부성로얄 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사업 수주

이수건설은 지난 5월 20일 인천 미추홀구 부성로얄 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미추홀구 용현동 615-2번지 일대 지하 3층 ~ 지상 40층 높이로 아파트 3개동 3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이다. 이 일대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능해IC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초, 중, 고 등을 도보권에 품고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하며, 자연숲 놀이정원과 용정 근린공원을 끼고 있어 우수한 숲세권이자 공세권인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수건설은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브라운스톤' 브랜드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안전과 품질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수시스템

WorkUP에
챗GPT 기반
AI챗봇 서비스 출시

이수시스템은 지난 5월 10일 클라우드형 HR서비스인 워크업에 챗GPT 기반 AI챗봇을 출시했다. 이는 HR서비스 업계 최초인 사례로, AI전문업체와 기술협약을 맺는 등 일찍이 AI기술역량을 다져온 이수시스템 R&D센터는 챗GPT가 공개되자마자 신속히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었다. AI엔진에 챗GPT를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문체 보정을 통해 사용자가 시스템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고, 반복되는 질문은 '자기재학습'을 통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응답하도록 설계하여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이수시스템은 클라우드형 HR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수앱지스

국산 희귀질환 치료제
출시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이수앱지스는 지난 5월 26일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의 출시 10주년을 기념하여 글로벌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 국내외 희귀질환 의료전문인 및 해외 파트너들이 참석해 고셔병의 국가별 치료법, 환자별 케이스 스터디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애브서틴은 세레자임(Cerezyme)과 동일한 성분명을 가진 효소 치료제로 출시 첫해에 약 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 2022년 매출액은 233억 원으로 이 중 수출금액은 186억 원에 이르렀다. 국내 점유율 역시 확고한 1위로 올라섰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세계적 권위자인 이스라엘의 아리 짐란 박사가 '성취와 실망: 고셔병의 지난 30년'이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수엑사켐

(주)JMC NB-LATEX
핵심 원료 'ADPOS
신공장 준공식' 참석

지난 6월 1일 울산시 온산읍에 위치한 (주)JMC의 ADPOS 생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ADPOS 생산 공장'은 사업비 총 178억이 투자되어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기존 공장 여유 부지에 토지 면적 9만 2,672㎡에 건물 연면적 2,770㎡의 규모로 지난 2022년 1월 착공했으며, NB-LATEX 중합반응 시 계면활성을 촉진시켜주는 음이온성 유화제를 생산하는 설비로 전량 수입 진행되고 있는 제품의 국산화를 이뤄낸 성과를 지니고 있다. 이수엑사켐은 현재 기존 Sulfur 제품인 TDM NOM을 LATEX 생산 고객사에 판매 중이기 때문에 ADPOS 판매를 통하여 해당 사업 분야의 확장 및 거래 안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수AMC

주식회사 공간세라믹
물류센터
종합시설관리 업체로
최종 낙찰

이수AMC는 5월 10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공간세라믹 물류센터 종합시설관리 업체로 최종 낙찰됐다.
발주처는 주식회사 공간세라믹이며,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109-2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2층 ~ 지상 4층, 연면적 15,265.92평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물류센터에 전문화된 시설관리 FM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서비스와 본사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PJ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꿈을 나누는 미래, 이수와 함께!!

공채 30기 신입사원 17명을 소개합니다.

인재 육성을 통해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일류기업으로 나아가는
이수그룹의 심장을 채워줄 젊은 피
푸른 꿈의 새내기들을 새로이 만나게 된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 4명, 이수페타시스 12명,
이수시스템 1명, 총 17명이 그들이다.

각자 품은 꿈과 이수그룹의 비전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3의 시너지로 큰 바퀴를 굴려갈 인재들이다.

이글거리는 젊은 태양의 계절 7월에 만나보는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의 신입사원의 눈동자에
환영하는 마음을 담은 미소가 가장 먼저 담기길…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전지윤 사원, **강채림** 사원, **신선이** 사원, **김현수** 사원

이수시스템

곽수빈 사원

이수페타시스

이정훈 사원, **위예림** 사원, **배현재** 사원, **김상민** 사원, **이동훈** 사원, **송원석** 사원

권준혁 (생산관리) 사원, **권준혁** (기획) 사원, **허지원** 사원, **조성필** 사원, **권혁빈** 사원 (위), **여행운** 사원 (아래)

다채로운 콘텐츠의 농구 축제,
그 이상의 스포테인먼트

2023 이수 챌린지 페스타 3X3

2023.6.22-6.24

예선. 성남 실내체육관 / 본선. 스타필드 하남

» 대회 포스터는 타이포그래피 아티스트로
유명한 김기조 작가와 콜라보를 통해 진행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성남 실내체육관과
하남 스타필드에서 열린 이수그룹의 제2회 3x3 농구 대회
<2023 이수챌린지페스타 3X3>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결정적 순간에 기회를 선별하는 안목과 실행 동력이라는
스포츠와 경영의 공통된 핵심가치에 방점을 찍는
김상범 회장의 각별한 철학이 녹아든 축제다.

많은 이들이 꿈꿨던 대형 쇼핑몰 위에서의 농구,
이를 현실로 가능케 한 것은
동시대 이웃과 공유를 통해
사회 공헌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
전 그룹 차원의 열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수챌린지페스타
하이라이트 풀영상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 쇼핑몰인 하남 스타필드 내 특설코트

2023 이수챌린지페스타에 총 40팀 참가

이수 팝업 부스 (홍보전시존, 자유투 챌린지, 포토부스)

여성부(4인 1팀) 종별 신설

드로우 챌린지 (기부금 1000원 적립) - 굿네이버스 기부

시민들과 함께한 아마추어 농구 축제

<2023 이수챌린지페스타 3X3>은 3x3 농구 저변 확대를 위해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만을 위한 축제의 장을 모토로 기획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민국농구협회, 한국프로농구연맹(KBL), 3 대 3 프로 리그에 등록이 되지 않은 순수 아마추어 선수만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총상금은 900만 원에 달해 순수 아마추어 대회에선 꽤 큰 규모였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로 거듭난 이 행사는 8강 토너먼트가 펼쳐지는 24일 주말을 맞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이벤트와 축하공연을 기획, 시민들과 함께하는 3x3 이벤트로 대회 취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2023 이수챌린지페스타>에 총 40팀이 참가해 22일 첫날 예선(대학일반부/여성부)을 치렀고, 23일에는 대학일반부 30강 토너먼트와 15강 토너먼트 경기가 진행됐다. 최근 여자 3x3에 대한 관심도와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부(4인 1팀) 종별도 신설된 것이다.

대회 첫날인 22일부터 참가 선수는 물론 관객들의 현장 참여를 통해 지루할 틈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이벤트로 현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홍윤광종' 팀의 이재홍 씨와 조종진 씨는 "각 지역별로 많은 농구 대회에 참가해 봤지만 쇼핑몰에서 농구를 하는 건 처음이다. 마치 축제의 현장에 있는 느낌"이라며 "또 오로지 아마추어 선수들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 프로 선수들과는 다른 추억을 쌓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본선 경기가 치러지는 23일과 24일에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팝업 부스가 메인 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고메 아트리움에서 운영됐다.

팝업 부스는 이수 드로우 챌린지, 자유투 체험존, 전시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수 드로우 챌린지와 자유투 체험존에서는 목표 점수 이상 달성 시 이수그룹에서 제작한 굿즈를 증정하는 등 방문객 대상 프로모션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2022 이수 챌린지 페스타 3X3

22일은 성남실내체육관에서 각 종별(대학일반부/여성부) 예선전 경기들이 치열했으며 본 경기 이외에도 하프슛 챌린지, 슬램덩크 챌린지 등 다양한 농구 관련 이벤트들이 마련됐다.

(왼쪽부터) 김세민 전무, 김상범 회장, 김성민 부회장

버블제이의 매직 버블쇼는 어린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어른들은 동심의 세계로 이끌며 모든 연령층과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다.

관객의 눈길 사로잡은 대회 이벤트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블라인드 자유투였다.

대회 이튿날 하남 스타필드 특설코트에는 참가 선수 및 관객 등 많은 인파가 경기장을 찾았고, 30강 경기가 끝난 후 선수 가족, 지인, 그리고 쇼핑객들이 코트에 나와 이벤트에 참여하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돼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선수들이 직접 참여해 기량을 겨뤘던 1on1 챌린지에선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남자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대회장에 온 '즐농라벨' 이주호 씨의 여자친구 나혜주 씨는 블라인드 자유투 이벤트에 성공해 부상으로 슬램덩크 농구공을 얻는 기쁨을 누렸다. 나혜주 씨는 "기대 안 하고 그냥 재미 삼아 참가했는데 운 좋게 성공했다. 남자친구 덕분에 멋진 선물 얻게 됐다. 다치지 않고 즐농했으면 좋겠다"라며 웃어 보였다.

페스타 당일 이벤트 참여한 일반 시민들

'즐농라벨'의 이주호 씨(왼쪽)와 여자친구 나혜주 씨(오른쪽)

블라인드 자유투 챌린지 이벤트

선수에 국한되지 않은 경기, 시민들과 함께

3x3의 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농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과 도심 한가운데서 호흡한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하지만 1회 대회에서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터라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지 못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고 이로 인한 갈증이 컸다.

1회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마저도 "취지 자체가 정말 좋은 대회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그렇게 4년이 흘렀고 2회 대회를 개최하면서 무엇보다도 대중과 함께하는 호흡에 중점을 두었다.

<2023 이수챌린지페스타 3x3>라는 새 타이틀과 함께 3x3 종목 특성에 걸맞게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하남 스타필드 한복판에 설치되어 한눈에 봐도 눈에 띌 수 있도록 잘 구성됐다. 1박 2일간 낮밤을 가리지 않은 담당자들의 열정 어린 수고 끝에 멋진 코트가 완성되었고, 선수들은 물론 관계자 모두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였다. 시민들의 동선을 고려해 설치한 코트 덕택에 모객 효과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었다.

화끈한 플레이로 이수챌린지페스타를 빛낸 선수들

여성부 초대 챔피언 등극에 성공한 '감사함둥'

아마추어 최강의 위엄을 증명한 '마스터욱'

우승, 준우승, 3위 시상 후 단체사진 (대학일반부 / 여성부)

우승 팀! 흐뭇한 상금, 확실한 동기부여

이번 대회의 대학일반부 우승은 <마스터욱> 팀이 차지했다. 이 팀은 코리아투어를 비롯해 전국 단위 3x3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휩쓸었던 아마추어 최강자이다.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적인 2점 슛을 터트린 팀의 막내 강남구 씨는 "4년 전 1회 대회 때도 제가 슬로우피벗으로 참가해 우승을 차지했는데 2회 연속 우승하게 돼 감회가 새롭고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팀 내 멤버인 김동훈 씨는 "참가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상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이수그룹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는 기존의 여러 다른 대회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상금을 책정하셔서 선수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틀만 진행되었던 다른 대회와는 달리 3일 동안 대회가 열려 선수 입장에서는 대회를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스포츠에 대한 여성들의 뜨거워진 관심을 반영해 여성부(4인 1팀)도 새롭게 개설했다. 예선 경기는 6월 22일(목)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본선 경기는 6월 23(금)~24(토)일 하남 스타필드 1층 메인 광장 사우스아트리움에서 펼쳐졌다. 여성부 초대 챔피언에는 '감사함둥' 팀이 차지했다.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주역인 진리애 씨는 "타 대회보다 이벤트를 많이 마련해 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다"며 "우승 상금으로 동료들과 회식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의미와 가치가 더해진 시너지, 스포테인먼트

모든 일에는 첫 번째가 어려울 뿐, 두 번, 세 번이 되는 건 쉽다. 차별화된 전략과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해 3x3 무대에 문을 두드린 이수그룹의 도전은 이번 대회로 끝나지 않는다. '페스타'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만큼, <이수챌린지페스타>는 앞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수그룹은 스포츠 시장으로 본격 진출해 국내 스포츠 산업 저변 확대에 묵묵히 기여하고 있다. LPGA 박희영 프로와 차세대 골프 스타 김주형을 비롯해, KLPGA 챔피언십(2015~2017년), 영건스 매치플레이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SSG 랜더스와 2년 연속 스폰서십을 체결해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수그룹 브랜드전략팀 조요한 상무는 "단순히 농구 대회에 그치지 않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스포테인먼트(Sports+Entertainment)'를 구현했다. 우리 모두 팬데믹을 겪으며 관객들과 함께 하는 호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만큼, 유동 인구가 많은 하남 스타필드에서 이수그룹이 더 많은 대중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그룹 안팎의 열정이 만든 시너지의 축제

이번 행사의 홍보대사를 맡았던 배우 문수인 씨는 홍보대사로서 역할은 물론 농구 마니아답게 선수로도 출전해 눈길을 끌었다. 문수인 씨가 속한 '고장문' 팀은 3연승을 달리며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문수인 씨는 4년 전 제1회 대회에서도 선수로 직접 참가한 경험이 있다.

사실 대회 홍보대사가 직접 대회에 출전하여 경기를 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는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2회 대회에도 출전을 결심했다고 한다. 문수인 씨는 "1회 대회 때 선수로 참가하면서 좋은 기억들이 많았다. 2회 대회에도 친구들과 참가 계획을 갖고 있던 중 때마침 이수그룹에서 홍보대사를 맡아줄 수 있는지 연락을 주셔서, 이번 대회에선 홍보대사 겸 선수로 참가했다"고 말했다.

홍보대사 겸 선수로 참가한 배우 문수인

다이다믹 듀오 피날레 공연

W걸스 프리스타일 공연

치어리딩 공연

퓨전엠씨 비보이크루 공연

한편, 농구대회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2023 이수챌린지페스타 3X3>을 즐길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슬램덕후'를 통해 농구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방송인 송준근, 정범균 씨가 특별 MC로 등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 힙합 그룹인 '다이나믹듀오'가 현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크루 '퓨전엠씨'와 국내 최초 농구 퍼포먼스 걸그룹 'W걸스'도 멋진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팝업스토어도 운영되었다.

경기 해설 중인 슬램덕후 (왼쪽) 송준근, 정범균 씨

멀리 퍼진 향기~~ 우리만의 축제에서 소외계층으로

첫 회와는 다르게 이번 행사는 재미있는 축제를 너머 사회 공헌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기업행사로 마무리되었다.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시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과 후원물품은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슈팅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이수그룹이 기부금을 적립했다. 후원 물품은 농구공·의류 등 11가지 물품을 담았다. 후원금과 물품은 인천서부 교육지원청을 통해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키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왼쪽) 조요한 이수그룹 브랜드전략 담당 상무, 홍선교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장

일회성이 아닌 이수챌린지페스타 후원 프로젝트

브랜드전략팀 조요한 상무는 "이번 기부금은 이수챌린지페스타에서 열린 '슈팅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이 한골 한골 넣어 적립한 기부금이다. 행사는 끝났지만, 이후에도 나눔을 실천해 모두가 즐거운 진정한 의미의 '축제'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후원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수챌린지페스타 후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소외계층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HEY!
이수 퍼플~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음악 공유해 줘!

음악을 듣는다는 건
다른 수많은 취미와 구별되며 어떤 예술 장르보다도 직접적이다.
한 곡의 음악으로 나에게 오는 위로와 고무, 때론 먹먹한 감동으로
심신에 안마를 받는 듯 그 저릿한 순간…
우리는 음악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큰 신세를 진 바 있어
다른 누구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기도 한다.
이 코너는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
간접경험도 진하디 진하다.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 … 내가 너의 손 잡아 줄게

김현진 대리 | 이수시스템 전략사업팀

인생에서 제일 많이 들은 노래인 것 같아 추천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는 god가 정말 인기 많았습니다.
그 무렵 친한 친구가 god 광팬이라서 god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던 친구가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저도 같이 울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꼭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들으면 덩실덩실 좋아요.
언젠가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꼭 들어보세요~~
한 곡의 노래가 인생 친구 하나를 능가하는 위로와 치유를 주기도 합니다.

comment

작사 작곡을 박진영이 맡았다. 2000년을 휩쓴 god 역사상 최고의 앨범 3집 수록곡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어떤 힘이 전해진다. 명곡은 이런가 보다.
…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도 많아
아무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기에 …

촛불하나
지오디(god)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우리의 꿈
코요태

Me Too
Meghan Trainor

Rain
폴킴(Paul Kim)

Square
백예린

Young, Wild & Free (Feat. Bruno Mars)

Snoop Dogg & Wiz Khalifa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 **Play Hard** (Feat. Ne-Yo & Akon) — David Guetta
- **얘랑 있을 때 좋다** — 어쿠스틱 콜라보
- **여행** — 볼빨간사춘기
-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 DAY6(데이식스)
- **Turn It Up** — Oh The Larceny
- **파도** — UN

자유로운 삶에의 지향, 근거 없는(!) 자신감 충전

김정환 대리 | 이수앱지스 생산지원팀

올해 2월 결혼할 때, 이수앱지스 황엽 사장님과 많은 임직원분들의 축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달 만에 몸무게가 8kg 증가했습니다. ㅠ.ㅠ
결혼 앨범 속의 저와 비교되는 현재 모습에 충격받아 다시 열심히 헬스장 다니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결혼을 비추라지만 전 강추~!
결혼의 장점: 와이프가 집엘 안 간다.
결혼의 단점: 와이프가 집엘 안 간다.

위 곡은 영화 mac & devin go to high school 사운드트랙의 리드 싱글로 발매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브루노 마스의 피처링이라 듣게 된 곡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들으면 정하기가 편합니다.

comment

팝송 힙합 장르 불구, 철없던 학창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가사 전달력 및 박자, 리듬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유로운 삶의 지향도 그렇고 뭔가를 결정을 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을 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나의 잔잔한 멜로디

송은진 사원 | 이수엑사켐 관리팀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고 저마다의 목적지로 향합니다. 저 또한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데요. 학교 다닐 때와 첫 직장을 다녔을 때, 잠실나루역에서 한강을 지나다녔습니다.
이 구간을 몹시도 좋아하여,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던 스마트폰을 잠깐 내려놓고 늘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로 반짝반짝 찰랑이는 한강도 예쁘지만, 퇴근 때, 어둑어둑 해진 한강을 보면서 생각에 잠길 때가 더 많았습니다. 유난히 지치고 힘들었던 하루도 한강을 보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금세 풀리곤 하였습니다.

comment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을 누군가가 좋아한다면 그 사이에 길이 하나 생긴듯 합니다.
제가 즐겨 듣던 노래를 몇 곡 추천드리니,
이 노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마음에 가닿았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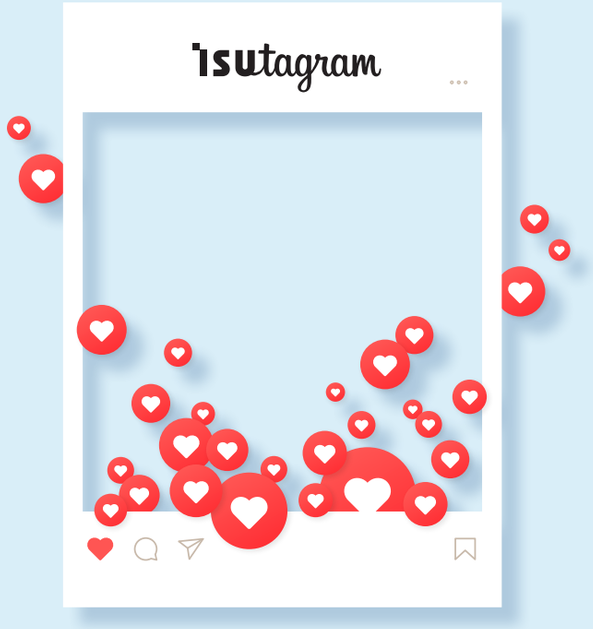
그대의 밤, 나의 아침

브라운 아이드 소울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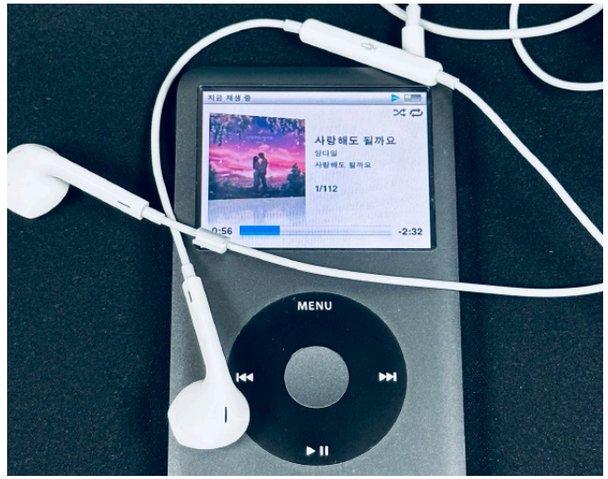
- **힐링이 필요해** — 로이킴
- **고마운 숨** — 타블로
- **외로운 동물** — San E(산이), 매드클라운
- **Fine** — 태연
-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 AKMU(악뮤)

이수 가족 한 개인의 빛나는 순간
주변 모두가 함께 **환하다!**



이수타그램은 그동안 호응을 보여온 이수인의 소통 코너이다.
계절감 담긴 사진이나 시사성 있는 이미지, 공유하고 싶은 개인적 관심사 등
혼자 간직하기 아까운 삶의 순간들을 넌지시 공개하는 이수 가족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다.
이수타그램은 스토리가 담긴 이미지를 공유하며
이수인의 자유롭고 활발한 내적 보물과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한다.
내가 갖지 못한 순간, 혹은 내게 없는 추억이라도
이수 가족 내 누구의 것이든 나의 것으로 환하게 맞아들이는
선한 교류의 장이다.

박성호 사원(이수엑사켐 관리팀)



20세기와 21세기를 이어주는 나의 레트로 컬렉션

레트로, 뉴트로…하면 오랜 향수를 자극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컬렉션은 그 시절 가장 사랑받았던 아이템인 iPod Classic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이코닉 한 클릭 휠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iPod Classic은 세심하게 선별된 재생 목록과 휴대용 음악의 시대를 구현했었고 현대의 음향 기기에는 뒤처지지만 그 차이는 감성이 적절히 메꿔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음악도 좋지만 그 시절 음악을 추억하며 재생하면 퇴근길, 산책길 등 일상의 순간들이 더 이상 저를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버려지고 잊히는 물건들이 많지만 수많은 누군가는 그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 그 물건들을 통해 회상합니다.
너무 바쁜 우리들이지만 과거를 수용하면서 물리적 연결은 어렵지만 기억은 간직할 수 있는 레트로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관통하는, 이어주는 컬렉션은 무엇인가요?

#iPod Classic #레트로 #뉴트로 #이색컬렉션

임연주 대리(이수AMC 공사관리팀)

생명에게 곁을 준다는 것, 기니피그와의 동거

저는 기니피그 똘이의 집사에요. 작은 동물을 기르고 싶어서 기니피그를 키우게 되었어요. 똘이는 작년 1월생으로 일 년 반 정도를 함께 보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커다란 햄스터 정도로 생각하고 데려왔는데, 햄스터보다는 토끼와 가까운 초식동물이라 아침마다 간식, 건초 신선한 물을 채워주고, 퇴근 후 산더미 똥을 치우고 비타민 C를 위해 맛있는 야채를 주는 것이 제 일상이에요. 종종 서프라이즈로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똘이가 좋아하는 미나리나 파프리카를 사 들고 가기도 해요. 현관문을 열면 울타리 안에서 절 보며 우는데 너무 귀여워서 괜히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보기도 해요. 집안 일상 소리, 간식 봉투의 뽀시락 소리만 들어도 꾸잉꾸잉 우렁차게 울어대는 작고 소중한 아이가 있어서 매일매일 즐겁네요.

이수 가족 여러분들도 집에 소중한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예쁜 아이들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기니피그 #소중한 #반려동물

양동훈 대리(이수시스템 HR서비스팀)

사진 속 메시지를 읽으며 느끼는 Healing의 시간

직장에서의 바쁜 일상으로 한 주를 보내고 나면 주말엔 긴장을 풀고 집돌이 생활로 충전했어요. 그러다 좋아하는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주말엔 나가서 힐링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평소 사진 전시회에 가는 것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인물사진의 경우 그 시대의 옷차림은 물론 표정에 담긴 소중한 찰나의 순간을 볼 수 있다는 게 다른 전시회보다 매력이 크답니다. 내가 저 사진 속 피사체 앞에 있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을까? 작가의 작품과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 속 작가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지친 내면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어 무척 좋습니다.

각자만의 방법으로 힐링의 순간들을 누리시면서 이번 여름도 모두가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전시회 #어노니머스프로젝트 #필름속일상 #힐링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엔 놓치기 아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 creativekeym / 이메일 : hjkim1@isu.co.kr

그대는 내면 부자 <문화 예술러>
일상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윤기

지난 봄호부터 신규 오픈한 이 코너는
그룹 사내 사우들 마음의 창문을 슬며시 열어보는
감성적 교류의 장입니다.

회사 내에서는 열심히 일한 그대,
회사 밖에서는 열렬히 놀아본 흔적이자 제안이고 부추김이랄까…
자알~ 놀아서 그 에너지 요긴하게 쓰일
배터리 충전의 공간입니다.

이수그룹 내 전 사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OTT를 통한 드라마 및 영화 감상기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아린 사원의 추천 콘텐츠

한아린 사원
(이수엑사켐 관리팀)

저는 요즘 달리기와 등산, 골프, 캠핑에 재미를 붙여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레일러닝 대회에 참가하였는데 나는 멈출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병이 나서 한동안 근육통에 시달렸지만 굉장히 재밌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NETFLIX 사이렌: 불의 섬

2023 | 12+ | 경쟁 리얼리티 시리즈

편견에 갇히지 않은 쎈 여사친들의 서바이벌 예능

치밀한 전략과 최강의 전투력을 모두 갖춘 여성 24인이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군인, 운동선수, 스턴트 배우 6종의 직업군별로 팀을 이뤄 미지의 섬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생존 전투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친구에게 추천받아 시청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다 봤습니다.

"멋있는 사람엔 남녀 구분이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이렌: 불의 섬>에서 소방 팀이 문을 부수고 나무에 올라가고 창문을 깨는데, 그게 여자 소방대원이라서 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단지 소방대원이라 할 수 있는 일이죠.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한 출연자의 인터뷰가 오래 남습니다.

보면서 운동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매우 강하게 들어 여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거 같네요. 운동 필요성과 욕구만은 절실한데 박차고 나가는 실행력이 미진해 결정적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 건강한 삶, 근육 있는 삶의 지향자들께 방법을 보여준 모델로는 최강군단인 것을 공감하실 거예요.

추가 추천 콘텐츠

wavve 피의게임2

2023 | 15+ | 예능

피의 게임의 두 번째 시즌으로 두뇌, 피지컬 최강자들이 사냥할 것인지 혹은 사냥당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극한의 생존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시즌 1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규모와 규칙, 플레이어 라인업을 예고하며 야생과 저택을 오가며 경쟁자들을 제치고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선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더 지니어스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아마 더 지니어스 팬분들이라면 피의게임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피의게임 1편도 상당히 재밌으니 강추 드립니다.

신동완 과장의 추천 콘텐츠

신동완 과장
((주)이수 이팀)

더위에 약한 체질이라, 요즘은 에어컨 시원하게 켜 둔 실내에서 콘솔 게임이나 음악 감상, 독서 등을 하면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을 위해 다년간의 자취생 경험을 살려 종종 요리를 맡아 합니다. 메인 콘셉트는 '냉장고를 털어라'인데요. 오래된 식자재를 활용해서 그럴싸한 요리로 재탄생시킬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NETFLIX 수리남

2022 | 18+ | 드라마, 액션&어드벤처 시리즈, 범죄 시리즈

돈, 명예,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남미에서 마약 조직을 운영하는 한국인 마약왕. 그를 체포하려는 정부의 비밀 작전에 한 평범한 사업가가 합류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시리즈로 수리남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마약 대부로 인해 누명을 쓴 한 민간인이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지만,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 이 작품을 보게 된 것은 6부작이라는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통상적인 16부작 드라마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제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목만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수리남이 어딘데?'라며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의 진짜 매력은 전혀 다른 삶의 동기를 가진 인물들끼리의 충돌과 결말을 묘사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드라마를 완주하고 나서는, '돈, 명예, 권력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상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면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발굴하면서 볼 수 있는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생각됩니다.

추가 추천 콘텐츠

NETFLIX 마이클 조던: 더 라스트 댄스

2020 | 15+ | 다큐시리즈, 미국 TV프로그램

농구 마니아를 포함, 마이클 조던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정작 그의 인생 스토리를 잘 몰랐던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요즘 '라스트 댄스'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쓰이는 데 그러한 트렌드에 불을 붙인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구 황제의 스포츠맨으로서의 위대함보다는, 인간적인 고뇌를 묘사한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보는 내내 '저런 자료들을 어떻게 찾아냈지?'라는 감탄이 들 정도로, 다양한 아티클들을 정성스럽게 모으고 편집한 일종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이므로 제작자의 특정한 시각이 반영된 측면은 없지 않겠으나, 가장 위대했던 스포츠 스타의 속마음을 직접 들어본다는 점 하나로도 이 작품은 충분히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나

꿈틀~~ 깨어나는 여행 본능
세상의 모든 여행

이 여름을 어찌할 거나 …
방콕 OTT에 눈 가슴 올인해도 허하기는 마찬가지,
지구는 둥글고 세상은 넓다 보니
둥근 만큼 솔깃하고 넓이만큼 두근두근

지구별 주민의 여행법이 변했다.
클릭 몇 번, 아니 생각만으로 어느덧 그곳에 있는
마법 같은 호사를 누리는 세월이다.
여행에 진심인 국내 선두 유튜버들이
꼬약꼬약 쟁여 둔 세상의 모든 여행
그 지난한 발품을 우선 생생하게 누려보자.
끌림은 힘이 세니
신발 끈 질끈 묶고 진군 앞으로!! 고고씽~~은
바로 우리 몫!!

» 페이지 하단,
여행관련 특별 차림은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 중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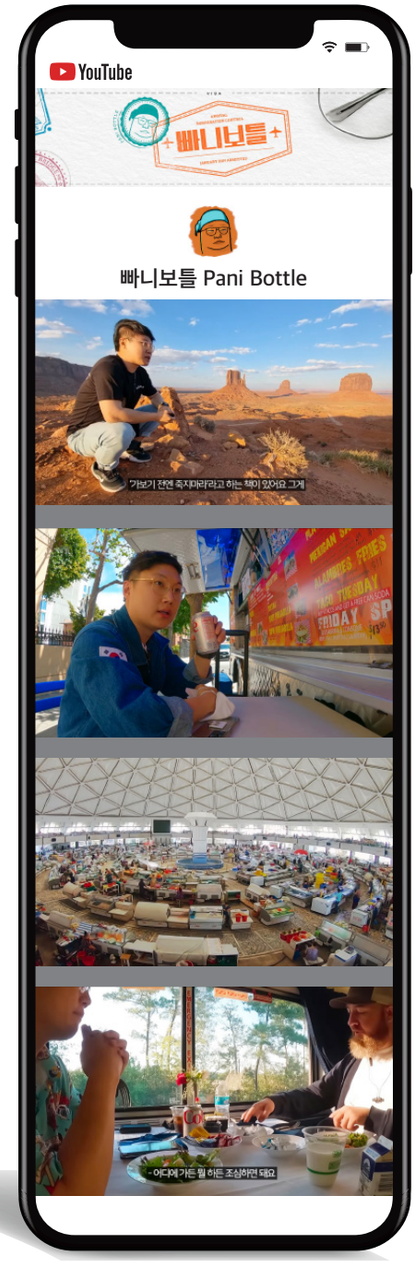
본 투비 지구 트래블러
국내 1위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 Pani Bottle

구독자 | **181만 명**

33살 백수의 빡시게 세계여행
유라시아 121편 / 아메리카 37편 등
하며 181만 구독자를 보유
세계를 누빈 국내 1위 여행 크리에이터다.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지구 마불 세계여행
등의 방송까지 진출해 영역 확장 중이다.

여한 없게 재미진 여행이 목표라는데
매번 다른 여행 꼬박꼬박 로딩으로 봐서
재미보다 의미에 진심인 길 위의 인문학도!!
63개국 여행, 본투비 트래블러 밤톨 청년은
뭐가 돼도 될 것이다…는 확신이 들 만큼
야무지게 자신의 발자국을 지구에 새긴다.
구독자 1천 명 찍고 울었다는데
천만 명 찍으면 무얼 하실라나.



» 행복을 찾는 일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면
여행은 그 역동성이 어떤 것보다 풍부하다.
여행은 비록 모호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일과
생존 투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삶이 어떤 것
인가를 보여준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에서!!
다큐 방불 영상 여행 일지

곽튜브

구독자 | **162만 명**

러샤어 전공자로 가능 지역부터 찬찬히 정주행,
실행력이 남다른 서른 살 청년의 영상 여행기다.
풋풋함과 깨발랄을 장착, 거품 뺀 쌩 날것
진정성 있는 뚝배기 맛 지대로 보여준다.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에디오피아,
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찰지고 실속 있게
꿈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뿌듯함을 대신 누린다.
길 위의 진땡이 삶을 실천하는구나…
곽튜브의 여행기는 여행지를 따라가기보다
사람을 여행하는 묵직한 맛이 있다.
풍경보다 사람에 끌리는 심성이 반영된 듯
인간 다큐의 향기가 가식 없이 전해진다.

» 세상이 불공정하거나 이해를 넘어설 때
여행에서 만난 숭고한 장소들은 우릴 다독여
한계를 인정하게 한다.
일이 그리되는 거 놀랄 일이 아니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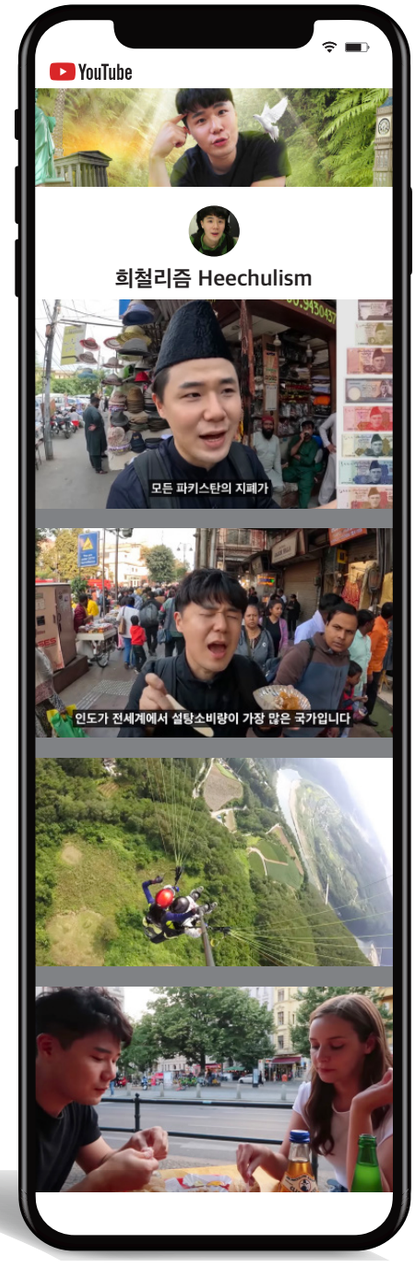
자칭 타칭 훈남 유튜버
대한민국 평범 청년 세계 일주기

희철리즘 Heechulism

구독자 | **89만 명**

2018년 야심 차게 4백만 원 들고 국제선 탑승.
전 세계를 망라해 발 도장 찍으면서
현지인 생활 리포트급 디테일이 살아있다.
코로나 구간 동안 활동을 멈췄다가
최근 파키스탄 여행으로 원숙미를 과시한다.
처음 접한 외국인과 주저 없이 대화 가능한
언어 파워 장착한 비밀병기로 일단 갑이다.

수시로 드루와~를 외치는 선정(!)적 타이틀
사실 가보면 선량할 뿐!!
안구가 정화되는 특별 관전 포인트
나라마다 화면을 새로 채우는 여사친들
초롱과 찐득 사이 어디쯤 되는 눈빛과
현지상인 뺨치는 순간 애드립
그 덕분에 조회 수 떡상승 후문



» 여행은 오래된 이국적 건물들을 보며 나의
정체성이 개별적 존재를 넘어선 시야를 갖게
한다. 내가 나의 집, 종족, 나 사는 도시의 정신
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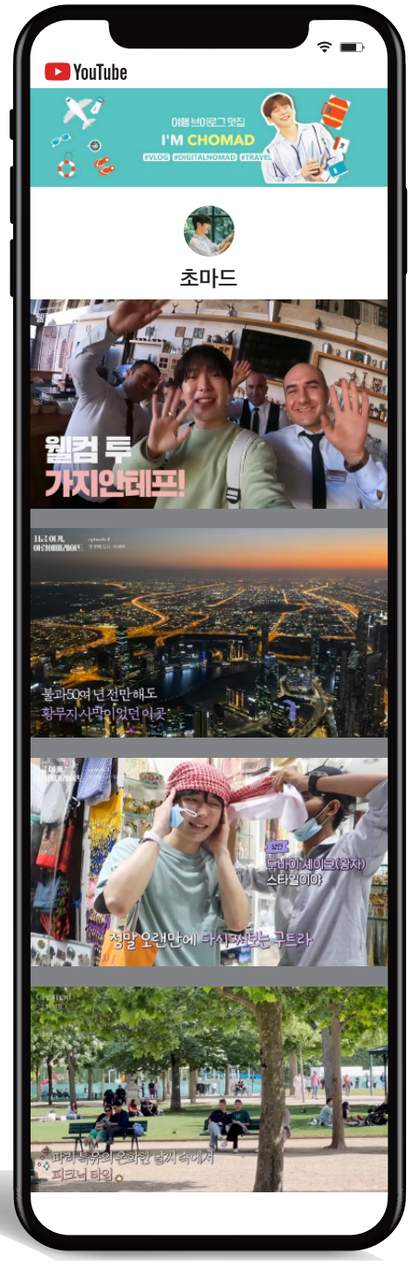
제주출신 깨알재미 제주여행
K-훈남의 세계여행

초마드

구독자 | **79.1만 명**

패션도 먹어주는 BTS 급 비주얼 지구 방랑자
화면을 채우는 주인장의 K-훈남 외모 포함
뷰를 낚아채는 카메라 센스도 남다르다.
프랑스,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어눌한 듯 또박한 진정성 담은 전달력에
풍경 유람보단 생활 베이스로 몰입도가 높다.

독특하게 아랍어 자막을 별도 로딩하며
@#$%@#$%^&— ? 댓글로 미루어
영어권 아닌 해외 구독이 상당한 듯.
울렁증 없이 친구 먹는 슈퍼급 붙임성
어디든 날리면 되오는 국내산(!) 핑거 하트,
욘사마도 기죽을 살인 미소까지
세계 곳곳 누비기에 최강병기다.



»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비행기 배 기차보다 내적 대화를 쉽게 끌어낼 곳은 찾기 힘들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칫거리기 일쑤인 내적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 도움을 받으면 술술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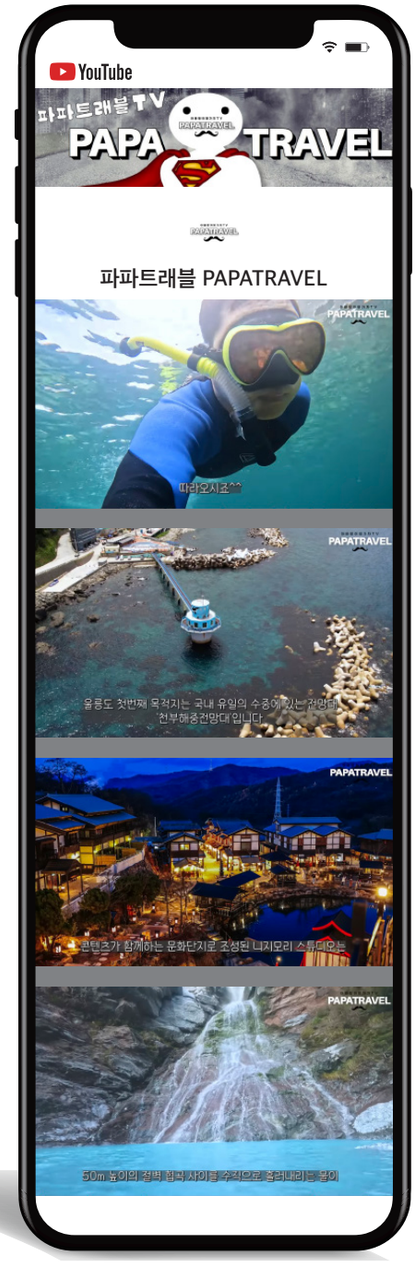
국내여행 고수 - 두 아들의 아빠
두들빠의 맞춤형 가족여행지

파파트래블 PAPATRAVEL

구독자 | **16.5만 명**

국내여행 총망라한 목록별 주제가 일단 군침.
◇파파트래블 Shorts ◇여행 꿀팁
◇두들빠의 여행 백서 ◇아빠랑 여행 가자
◇맛있는 밥 주는 민박집 등의 실용 팁이 많아
여행 좀 했다 싶은 고수의 포스가 넘실댄다.

재생목록에 올라온 여행지의 면모가
국내 콘텐츠로는 다양을 넘어 현란하다.
구석구석 뒤지고 살핀 흔적 역력하고
조밀한 그물과 촘촘한 필터를 거쳐
눈길 맘길 발길을 당기는 흡인력 세다.
일단 매끄럽고 활기찬 어나운싱,
카메라 포착점마다 찰지게 감기는 묘사력
변별력과 차별화를 훅 끌어올린다.



» 도시의 떠들썩한 차량들 한가운데서 마음이 헛헛해지거나 수심에 잠기게 될 때 자연을 여행할 때 만났던 이미지들 덕분에 노여움이나 천박한 욕망의 힘들을 약간 무디게 할 수 있다.

빙수 동서고금

스토리쉐프가 차려내는 식탁

눈 반짝 등골 서늘, 입안에서 녹는 보석

7월의 태양, 그대 앞에서라면
턱없이 버거운 적장을 마주한 듯
지레 백기를 들게 되는
지구 주민의 여름 나기 구간이다.
이럴 땐 뭐니 뭐니 해도 눈꽃 황홀하게 소복한 빙수,
밥보다 간절하고 친구보다 반갑다.

지져 댈 듯 달려드는 태양 아래
더러 내면까지 지글대는 열불을 견디는 중이라면
긴급 진화의 소방수가 너끈히 되어줄
이가 얼얼 시린 빙수 바로 콜!

빙수야 ~ 빙수야 ~

빙수 예찬

대중가요 중 악동뮤지션의 <콩떡빙수>가 있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라면 윤종신의 <팥빙수>가 소환되는 철.
이맘때 딱 그게 간절해 싶은데 접속 불가라면 흥얼거리라고 생긴 노래일 테지만 자칫 종일 입에 달라붙을 수 있다.
남녀 불문 노소 무관 황제급 환대를 받을 자격이 지당하신 빙수는 단순 디저트가 아니다. 눈이 반짝~에서 시작해 등골 서늘~로 마감되는 입안의 보석이다. 무용이나 발레보다 기능적인 순간 예술이면서 회화나 조각품을 버금하는 시각적 충만함으로 여름 내내 찬가를 바쳐도 과하지 않겠다. 뿐만 인가, 구강점막 얼얼하게 가학적으로 훑고 지나가면 더 강렬히 다음을 불러 바닥을 보고야 마는 그야말로 색-성-향-미-촉 5감 올킬, 황홀한 테러일 터.

빙수(氷水)란 얼음을 곱게 갈아 시럽과 함께 팥, 과일, 우유, 떡, 젤리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만든 식품이다. 포슬한 눈을 한 사발 퍼다가 혹은 얼음을 얇고 곱게 갈아 꿀, 과일 등을 얹어 먹겠다는 발상에서 시작해 세계 곳곳 각양각색 저마다 발전해 빙수의 역사는 알록달록 길다.

입안에서 녹는 보석, 빙수의 역사

인류 역사는 신의 영역에 근접하려는 시도로 점철되어 있다. 빙수 또한 그에 속한다. 하늘에서 부스러져 내린 구름 가루인 듯, 지상에 쌓인 눈을 입에 대본 적이 있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다음엔 다른 맛난 것을 보태고 더해 미각의 황홀을 업데이트해가며 오늘에 이른, 신과 인간의 합작품이 바로 빙수렷다.

영화 <남극의 쉐프>는 남극 돔후지 기지로 파견된 8명 남자들의 극한 환경 견디기 휴먼 드라마다. 눈 말곤 아무것도 없는 발아래 야구놀이 경계선을 그어 논 빨강 딸기 시럽을 눈과 함께 벅벅 긁어먹는 장면, 아하 빙수의 원형이 바로 저거겠구나…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빙수는 BC 3천 년경 중국에서 얼음을 잘게 부숴 꿀과 과일즙을 섞어 먹은 밀사빙(蜜沙氷,여기서 '사'는 모래가 아니라 팥소(豆沙)라는 뜻)이다. 그 후 송나라 역사책 송사(宋史)에는 복날 황제가 대신들에게 팥빙수를 하사한 기록이 나온다. 송나라는 빙수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요거트 빙수, 앵두를 얹은 과일빙수, 현대의 와인빙수 닮은 매화주 빙수까지 언급된다.
송의 빙수 발달은 바로 얼음 저장 기술에 있었다. 음식문화 평론가 윤덕노는 "12세기를 전후한 문헌에는 지금의 눈꽃 빙수로 추정되는 식품도 볼 수 있다"고 전한다.

서양에선 BC 300년경 알렉산더대왕이 페르시아제국 점령 무렵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더위와 피로에 병사들이 쓰러지자 산에 쌓인 눈을 퍼다 꿀, 과일즙 등을 섞어 먹었다. 카이사르는 알프스의 눈을 술과 우유에 섞어 마셨으며 네로 황제는 알프스 만년설에 꿀과 와인을 뿌려 먹었다고 한다.

오색이 찬란, 가슴까지 서늘

11세기 <마쿠라노소시>라는 일본 고전에도 빙수가 보인다. 얼음을 얇게 갈아내어 차갑게 식힌 금속 그릇에 담아 칡즙을 뿌려 먹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일본 전통 빙수 카키고리와 그대로 닮았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빙수를 맛본 사람은 고종 때의 외교관 김기수였다. 그는 1876년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차 일본에 간 수신사로 외무대신과의 만찬에서 디저트로 먹었다. "그릇에 담긴 얼음 즙의 생김새가 마치 가짜로 만든 산 같은데 오색찬란 빛나는 게 맛이 달아서 먹을 만하나 입속에 들어가면 가슴까지 서늘하니 이 또한 괴이하다. 얼음을 갈아서 만들었는데 한 모금만 들어가도 치아가 시리니 어떻게 만든 건지 모르겠다" 며 신기해한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에는 조선말까지 빙수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근본이 왕족, 태생은 황실 - 슈퍼 럭셔리로 회귀

빙수가 점점 화려해지다 보니 가히 황실용 보석 비빔 요리 수준이다. 하긴 지체 높은 황실용으로 태어난 식품의 귀족 아닌가. 비단같이 사르르 혀에 감겨 녹는 눈꽃 얼음에 딸기, 망고 등 각종 열대과일을,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린 후 솜사탕을 덮고 장미꽃과 금가루를 뿌린 다음 마지막으로 샴페인을 부은 금가루 빙수까지 등장했다. 2010년 이후 신라호텔의 애플망고 빙수를 시작으로 프리미엄 과일 빙수가 유행했다. 호텔 빙수 중 럭셔리를 작심하고 1인당 20만 원 육박하는 곳도 있다. 세계 어디나 있을 가격 불문 성향의 극소수 하이엔드 향유자들 대상으로 슈퍼 럭셔리를 무한 추구한다.
인간의 욕망과 그걸 충족하는 기쁨의 사이에 가로 놓인 강은 아무리 많은 황금을 부어도 마다하지 않을 터! 도박보다 느긋하고 마약보다 도덕적인 순도 높은 사치다.

(출처: 호텔신라)

(출처: 포시즌스호텔서울 마루)

각 나라별 빙수

빙수는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에서 널리 사랑받았던 식품으로 11세기 무렵부터 지금과 같은 빙수가 유행했다.

일본 - 1869년 요코하마에 최초로 빙수 가게가 생겼고 1887년 수동식 빙수 기계가 처음 특허를 받았다. 당시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가 널리 퍼진 것은 1930년대 이후부터다. 카키고리라 부르며 곱게 간 얼음에다 시럽만 뿌려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식 빙수가 일본으로 진출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대만 - 얼음을 얇게 깎아 층층이 쌓아 올려 다양한 토핑을 얹어서 먹는 쉐산(雪山)이 있다. 얼음 자체도 다양한 맛이 있다. 비교적 현대에 만들어진 망고 빙수가 대만의 대표 먹거리로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홍콩 - 훙다우빙(紅豆氷, 홍또우삥)이라는 빙수다. 홍콩식 카페인 빙삿에서 광동 지방의 단팥죽인 훙다우사(紅豆沙)에 차용해서 만든 걸 기원으로 한다. 길쭉한 선데이(sundae) 잔에 담아 주는 것이 기본이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 - 아이스 카창(Ice Kacang)이라는 시럽을 뿌려 먹는 빙수가 있다. 화교가 많아 중국식으로 홍도우삥(紅豆氷)이라고도 한다. 빨강/분홍색=딸기 맛, 초록색=사과 맛, 갈색=커피 맛의 3색 시럽을 얹어낸다.

필리핀 - 할로할로(Halo-halo)라고 부르는 빙수가 있다. 팥 대신에 설탕에 절인 콩이 들어간다.

이란 - 파루데(Faloodeh)라는 국수를 얼려 만든 빙수가 있다. 베리에이션은 다양하지만 향신료로 들어가는 장미수가 필수다. 얼음 위에 리치 시럽을 뿌리고 형형색색 젤리 올갱이와 리치를 얹어 낸다.

일본 카키고리 (출처: visit-chiyoda)

대만 쉐산 (출처: ice-monster)

이란 파루데 (출처: ifpnews.com)

장안의 빙수 맛집

빙수를 전면전으로 내세운 디저트 카페가 많아지면서 이전보다 다양한 맛과 형태를 즐길 수 있다. 국내 빙수 프랜차이즈로는 설빙, 호미빙, 드롭탑, 밀탑 등이 있지만 장인 정신으로 빙수 고유한 디테일에 인생을 걸어온 소규모 예술공방 느낌의 전문점도 돋보인다.

부빙

부암동 빙수라는 조촐한 가게 이름을 걸고 국제적 명성까지 생긴 곳. 구석구석 북극곰 캐릭터와 함께 옥수수, 감자, 말차, 복숭아 등 4계절 제철 재료로 무한 응용을 해내는 성의와 창의적 개발 의지가 감동을 주는 빙수 전문점으로 가회동에 2호점이 있다.

Ⓐ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136 부빙 Ⓣ 02-394-8288

강정이 넘치는 집

2010년 창업한 떡, 강정 등 한식 디저트 전문점이다. 놋그릇에 소박하게 쌓아낸 팥빙수는 흔한 우유 얼음이 아니다. 투명한 얼음을 거칠게 갈아내 밑에 쌓고 그 위에 팥소와 인절미, 절이고 말린 대추를 정갈하게 올린다. 전통 디저트의 격을 행복하게 누리는 보기 드문 집이다.

Ⓐ 서울 강남구 학동로 435 1층 Ⓣ 0507-1417-0447

지선당

위례 신도시 아파트 단지 수만큼이나 카페가 많은 이곳에서 여름이면 사람이 몰리는 곳이다. 팥빙수는 우유, 두유, 우유녹차 등 얼음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유리 대접에 소복이 담겨 나온 팥빙수는 꾸밈이 적지만 볼수록 정감 가는 옛 친구 같다. 한입 맛보면 범상치 않은 맛! 단팥, 연유, 떡 등 모든 재료를 직접 만든다.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2 위례역 푸르지오 6단지 118호 Ⓣ 0507-1468-5562

부빙

강정이 넘치는 집

지선당

이수인의 심폐 확장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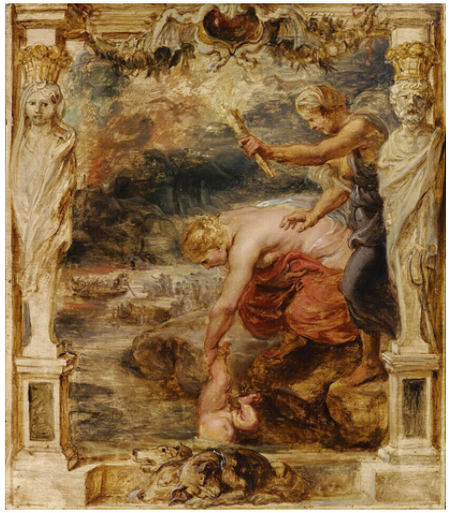
신의 선물 면역, 과학으로 보강하다
면역과 바이오의약

코로나가 기다란 꼬리를 끌며 뒷모습을 보인다.
이전에 지켜냈던 많은 것들이 기나긴 암전 사태를 거치며
얼음 땡! 멈춰 섰다가 시나브로 회복되면서
인간의 몸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이토록 치명적 타격을 받을 우리 몸이라면,
그동안 그저 그렇게 무심한 듯 유지되어온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조화속으로 가능했던 것인가… 새삼 숙연해진다.

이번 호에서는 그 특별한 힘, 인체의 면역과
가장 위협적이면서 보편 질병인 암에 대항하는
바이오의약의 현주소를 개괄해 본다.

글 _ 이재향(칼럼니스트)

아킬레우스는 여신 테티스와 인간 펠레우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테티스는 아들에게 신과 같은 불사의 몸을 주고자 아기 몸을 거꾸로 잡아 스틱스 강물에 담갔다. 덕분에 아들은 인간의 무기에 상처를 입지 않는 몸을 얻었지만 그녀가 잡았던 발꿈치는 치명적 약점이 되고 말았다. <스틱스 강물에 아기 아킬레우스를 담그는 테티스>는 루벤스가 그린 "아킬레우스의 일생" 7점 중 하나로 신화의 내용을 실감 나게 담고 있다.
이 신화를 은유로 읽자면 불사의 육체에 대한 염원을 면역으로 치환해 이해할 수 있겠다. 인간이 부여받은 면역이라는 것은 신비한 특혜인 동시에 운명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서사이리라.



Thetis dipping the infant Achilles into the river Styx
(출처: Museum Boijmans Van Beuningen)

1초도 쉬지 않는 면역의 신비

사회적 존재로서 한 인간이 다른 존재와 연대 되어 무한한 고리로 이어지듯, 인체에 깃들어 있는 세포와 미생물까지 고려할 때 개별적인 우리 몸 또한 각각 하나의 거대한 우주다.

인간은 모두 건강의 왕국과 질병의 왕국, 이 두 왕국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는 법.
아무리 좋은 쪽의 여권만 사용하고 싶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다른 영역의 시민이기도 하다는 점을 곧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인류 보편에게 있어서 건강과 질병의 운명적 공존을 이토록 시적으로 묘사한 이는 수잔 손택이다. 자신의 저서 <은유로서의 질병> 서문 중 일부로 이 글을 쓸 때 암 투병 중이었다고 한다. 인간은 힘이 있는 동시에 무력하다. 여기서 말한 힘과 건강은 우리의 헤아림 이상으로 고도화된 면역이라는 신비에 의해 가동되는 한시적 진행형이다. 당장 낫는 약이나 지엽적 수술로 어떤 병을 고치는 것은 유리창의 파리를 망치로 잡는 것에 비유된다. 병은 잡을지언정 보다 큰 본질의 파괴를 수반한다. 면역은 불멸의 군대가 아니며 독한 외부의 힘에 망가지기도 한다.

후천면역은 표적이 되는 항원에만 강력한 맞춤형 대응을 하고, 기억 반응이 있어 동일 항원의 침입을 막는다.

면역(免疫, Immunity)은 사전적으로 몸속에 들어온 병원균이나 외부 물질을 방어하는 모든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인간의 몸은 병원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있다.

1) 물리적 방벽으로 병원체의 침입을 차단한다.

2) 병원체가 침입했다면 닥치는 대로 처치한다.

3) 부족하다면 병원체의 세부적 특징을 파악하여 맞춤형 대응으로 섬멸한다.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1)과 2)에 해당하는 것이 선천면역이며, 3)에 해당하는 과정이 후천면역이다.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얻는 것도 모두 후천면역 덕분이다. 모든 생물이 선천면역을 가졌으나, 후천적 면역은 일부 고등 생물들에게서만 발견되므로 보다 진화된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몸이 무쇠가 아니라는 신호, 암

너나없이 우리 모두 존재의 시발점은 수정란이라는 세포 상태였다. 무수한 세포분열을 거쳐 지금의 고유한 개인이다. 끊임없이 증식한 세포는 제 기능을 다한 후 사멸함으로써 개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새로운 세포의 분열, 분화, 사멸은 개체의 생존을 위해 매우 정교하게 조절된다. 그러다가 돌연 기계 결함과 유사한 세포분열 통제의 이상으로 죽은 세포보다 더 많은 세포가 생성되거나 세포사멸의 이상 현상으로 볼록한 혹처럼 기형적으로 자리를 잡아 쉬지 않고 증식되는데 바로 이게 암이다.

정신적 육체적 생활의 지속적인 나쁜 요인으로 인해 암유전자의 과도한 활성화와 암 억제유전자의 결함에서 생긴다.

암은 우리나라 3명 중 1명, 2021년 한 해 31만 7천 명이 사망해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공포의 병이다. 수많은 치료제가 개발되었음에도 암은 돌연변이를 통해 스스로 약물 저항력을 키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암세포의 특징

| 성장인자의 자급자족 - 성장인자가 공급되지 않아도 스스로 공급하거나 성장 가능

| 성장억제신호 저항성 - 성장억제신호로 통제되는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는 억제신호 무시하고 성장과 분열 지속

| 세포사멸에 대한 저항 및 회피 - 세포가 망가지면 사멸되나 암세포는 저항 및 회피 능력을 얻어 활성화

| 무제한 세포분열 -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분열이 억제되는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는 무제한 세포 분열

| 혈관 생성 촉진 - 영양분 부족 시 주변 혈관 생성을 촉진, 암세포 주변으로 유도해 생존에 유리하게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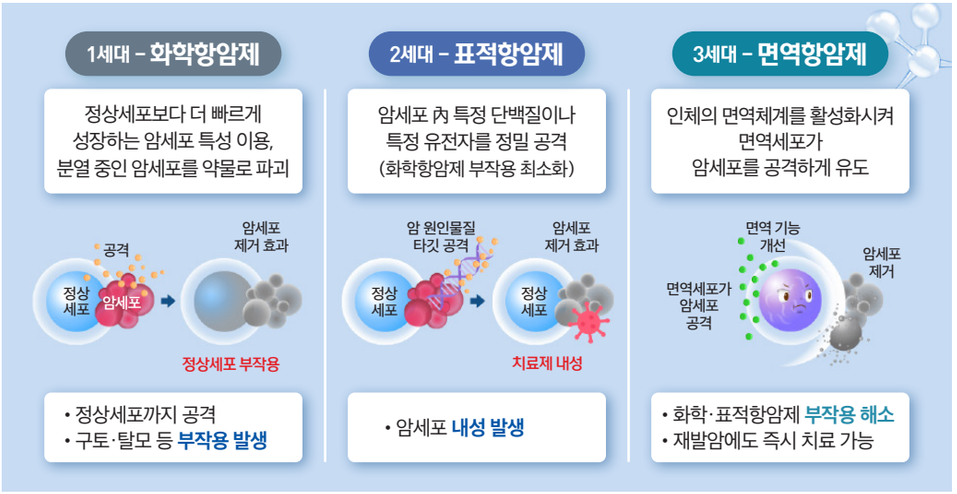
| 조직 침윤과 전이 - 성장에 공간적, 영양적 문제 시 다른 조직 세포로 스며들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 가능

면역으로 접근하는 항암신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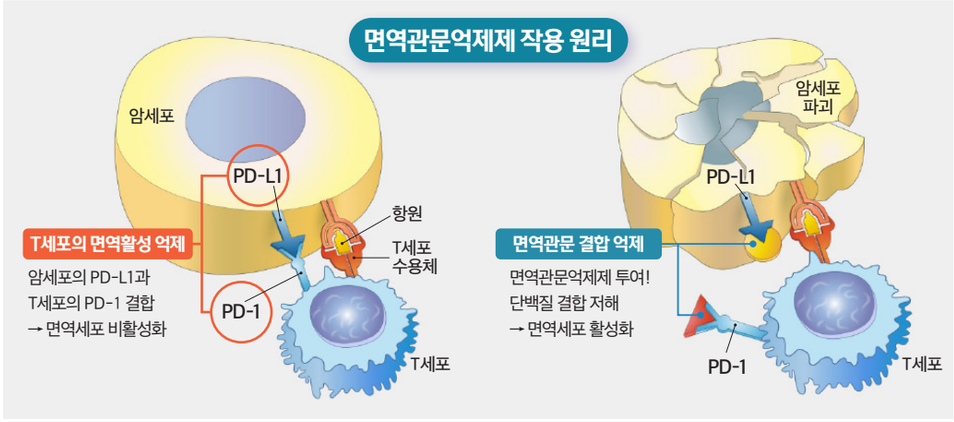
기존의 암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1) 화학항암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특성을 이용해 분열 진행 중인 암세포를 약물로 파괴하여 성장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상세포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들도 같이 공격하므로 탈모 등과 같은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2) 표적항암제는 암세포에만 나타나는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에 작용하는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화학항암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장기적 투여로도 영리한 암세포의 내성을 완벽히 꺾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두 치료법 중 부작용을 줄인 항암치료제가 바로 **3) 면역항암제**이다. 이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유도하는 치료제이다. 면역항암제 카테고리의 다음 두 가지 치료제를 살펴본다.

A) 면역세포치료제 - 인체 내 면역세포가 고유의 살상능력을 보유한 것에서 착안해 그 점을 개량하여 암세포를 탐지,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환자 본인의 세포를 사용하므로 외부물질에 대한 거부반응과 부작용이 없으며 사용 후에도 체내 세포로 영구히 남아 암세포가 재발해도 즉시 치료가 가능하다. 성능 좋은 면역 시스템을 추가하는 효과를 내지만 가격이 비싸 다른 치료제를 거친 후이거나 재발한 암 환자에게 최후의 항암제로 처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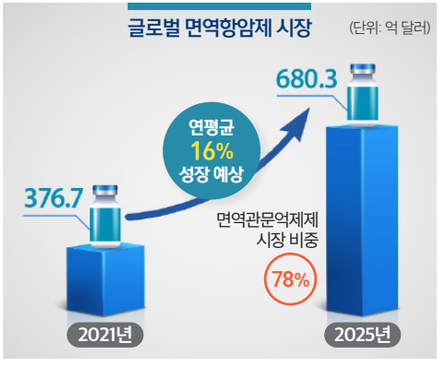
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오면서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새로운 바이오의약품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왼쪽) 암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면역세포인 T세포와 결합해 T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오른쪽)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하면 이 결합이 억제되고 T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암세포를 파괴한다.

B) 면역관문억제제 - 면역관문이란 면역세포가 체내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면역체계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다. 이 면역관문을 차단하면 활력을 얻게 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앤설리번에 따르면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은 2021년 376.7억 달러에서 2025년 680.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6% 성장이 예상된다.



(내용 출처: Frost & Sullivan)

이중 면역관문억제제가 전체 시장에서 78%로 가장 높다. 2014년 미국의 BMS가 개발한 면역관문억제제 옵디보(Opdivo)가 승인을 받은 이후 총 6개의 타깃 치료제가 추가로 개발되어 2021년 매출 기준으로 면역항암제 시장의 약 89%를 차지하면서 앞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효능이 높지만 일부 암에 국한되어 있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그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면역관문억제제에 다른 치료제를, 혹은 다른 면역관문억제제를 병용하는 치료법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 바이오시밀러

일반적으로 새로운 의약품이 개발되면 개발자에게 일정 기간 특허권을 부여해 개발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준다. 이 법적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의약품의 주성분을 복제해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처음 개발된 의약품을 오리지널(original)이라

화학적 합성 복제약인 '제네릭'과 달리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검증되고 있다.

하고, 법적 보호기간 후에 복제된 약을 복제약 혹은 제네릭(generic)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복제약이라 함은 합성화합물을 원료로 화학합성에 의해 생산되는 의약품을 의미했다. 이는 오리지널 합성의약품의 화학식만 알면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반응에 이변이 없기 때문에 오리지널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시험 없이 약식 허가 절차를 통해 저렴하게 개발 가능하다.

바이오의약품(Biomedicine)이란 유전자 재조합, 세포배양처럼 생명체의 특성을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을 일컫는다. 분자구조가 복잡해 고도의 생명공학기술이 필요하며 질병 원인 물질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효능이 우수해 임상시험 성공률도 높다. 게다가 인슐린이나 인간성장호르몬, 조혈촉진호르몬 등은 화학합성으론 제조 불가능한 영역까지도 성공했다. 개발비용도 높을 뿐만 아니라 생물체를 이용해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주변 영향을 많이 받아 개발에 많은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효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비싼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값싸게 대체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팽창해 왔다.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란 한마디로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으로 동등생물의약품이라고도 불린다.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만을 칭하며 동일한 성분 및 효능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공정 환경이 오리지널과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똑같은 바이오 복제약은 나올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항상 임상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동등성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도 축적된 제품 생산 역량을 활용하여 바이오시밀러에서 바이오의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면역관문억제 항암 치료제 옵디보의 국산 바이오시밀러 'ISU106' 이 러시아 제약사로 기술 수출된다.

선전(善戰) 중인 이수그룹

이수앱지스는 면역관문억제제 타입의 항암치료제 옵디보(Opdivo/성분명:니볼루맙)의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인 'ISU106'을 러시아 제약사 알팜(R-PHARM)사에게 기술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치료제는 인체 면역력을 증강시켜 암세포를 이물질로 인식해 이를 제거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는 항암제이다. 환자의 면역체계를 활용해 암세포에 영향을 주므로 기존 항암제의 전형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알팜사는 2001년에 설립된 러시아의 선도적인 제약사로 의약품 개발에서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의 수직화된 체계를 구축해 항암, 희귀질환 치료제 등 광범위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옵디보는 2021년 기준, 약 8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면역관문억제제를 활용한 항암치료제 시장에서 키트루다(Keytruda)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잘 훈련된 특수부대, 면역 & 바이오의약의 미션

유구한 세월 동안 인류가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 곁을 지켜온 힘이 바로 면역이라는 게 감동스러운 일이다. 위기의 국면마다 질병에 대항해온 인류는 매번 새롭게 등장한 적을 상대로 전의를 불태웠다. 그 결과 해당 질병은 물리쳤지만 면역도 함께 약화되고 말았다. 세상의 많은 약들이 저마다의 효능으로 인류를 당장의 고통에서 구하는 데 기여를 한 것은 엄연하다. 하지만 이것은 전시에 마을 깊숙이 파고든 적군을 없애기 위해 마을 전체에 폭탄을 쓰는 일과 같다. 잘 훈련된 특수부대를 투입해 적을 골라 없애는 일, 마을의 주민과 기반 시설을 훼손 없이 보존하는 일이 가장 이상적인 전투일 것이다.

세포와 세포 사이, 인체 내 각 기관들 사이에서 외부 병원체에 대한 기초 방어를 담당하는 면역은 태곳적부터 인류가 받아온 출생 선물이다. 이 면역이라는 특수부대의 전투력을 일깨우는 것이 비로 바이오의약의 주된 미션이겠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이 그러하듯 인체 전반에 유지되는 조화와 균형, 이것이 이상적인 건강 상태다. 그 근원인 면역의 힘을 귀히 여기는 자리에 바이오의약이 있다.

참고 자료
·ISU ABXIS / SERICEO / 암이란 무엇일까요? - 국가암정보센터
·<면역에 관하여>율라 비스 저, 김명남 옮김, 열린책들

JiyongKim Exhibition

자연이 매만진 탈색 **순리로 직조된 지용킴의 세계**

JiyongKim, 2023 SpringSummer Collection, Look Book

예술과 일상의 '새로 보기'를 제안하는 이수그룹의 문화예술 공간 '스페이스 이수'에서는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JiyongKim Exhibition>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인 '지용킴(JiyongKim)'의 최신작인 '2024 봄/여름 컬렉션(2024 Spring/Summer Collection)'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이자 다채로운 패브릭 작업과 설치를 통해 시간과 자연의 순리로 직조되는 지용킴의 세계를 소개한다.

원단마다 염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결과물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하나의 디자인을 위해 수백 번의 실험 과정을 거치며 원단에 적합한 방법을 고안한다.

넓은 야외 공터의 펜스에 걸린 채 오랜 시간 햇빛과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완성된다.

풍화에서 건진 바램의 미학

스페이스 이수의 <JiyongKim Exhibition>은 몇 개월간 햇빛과 자연의 변화에 원단을 노출해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내는 '선 블리치(Sun-Bleach)' 기법을 특징으로 하는 지용킴의 새로운 컬렉션뿐만 아니라 선 블리치 된 원단을 활용한 아트워크와 설치를 선보임으로써 한여름 태양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펼친다.

선 블리치는 오직 자연의 힘만을 이용한 탈색 기법으로 빛이 바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에서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는 미학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된 원단은 오랜 시간 태양과 바람, 눈과 비 등의 자연 현상을 거치며 깊이 있는 색조와 풍화 효과가 새겨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으로 재탄생한다.

JiyongKim Exhibition, Current, Platz 2, 2022

빛바랜 것을 향한 시선, 새로운 가치로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거리에 걸린 현수막들이 햇빛에 퇴색되고 바람에 휘감긴 모습이나 공사장에서 구조물들을 천막과 끈으로 감싼 모습 등 거리의 일상적 풍경에서 비롯되는 지용킴만의 영감의 원천들부터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완성되는 선 블리치 제작 과정을 사진과 영상, 리플릿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JiyongKim Exhibition, Current, Platz 2, 2022

JiyongKim, 2023 SpringSummer Collection,
sun-bleached tailored collar half sleeve shirt

JiyongKim Exhibition, Space ISU, 2023

이수화학 폐근무복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버려진 것들에 담긴 전복적 힘

이 밖에도 이수화학의 폐근무복을 선 블리치로 변모시켜 새롭게 재구성한 업사이클링 작업도 소개될 예정이다. <JiyongKim Exhibition>은 패션산업이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 빛 바래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지용킴의 작업을 통해 우리가 매일 입는 한 벌의 옷에 담긴 전복적 힘과 지속가능성을 꿈꾸는 패션과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한다.

Upcycling Project

이제는 입을 수 없게 된 폐근무복을
바지와 가방으로 변모시킴으로써
모두를 위한 유니폼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지속 가능한 작업으로 전환한다.

JiyongKim, 2024 SpringSummer Collection, Look Book

2024 봄/여름 컬렉션 (2024 Spring/Summer Collection)

이번 전시 동안 주말에는 스텝들의 안내에 따라 지용킴의 최신작인 2024 봄/여름 컬렉션을 가까이에서 보고 직접 착용해 볼 수도 있다.

자연의 순리를 스승 삼은 글로벌 커리어

'지용킴(JiyongKim)'은 김지용 디자이너(b. 1990)가 전개하는 남성복 브랜드다.

그는 일본의 문화복장학원(Bunka Fashion College)을 시작으로 영국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Central Saint Martins) 학부 및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일본의 메종 미하라 야스히로(Mason Mihara Yasuhiro), 르메르(Lemaire) 그리고 루이비통(Luis Vuitton)에서 디자인 어시스턴트로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지용킴의 컬렉션은 도버스트리트마켓(Dover Street Market), 에센스(SSENSE), 셀프리지(SELFRIDGES)와 미스터포터(MR. PORTER)를 포함한 다수의 해외 및 국내 커머스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이수가족이 정성껏 채색해 주신 컬러링 응모작을 소개합니다.
작은 행복, 컬러링 테라피 코너에 앞으로도 많이 응모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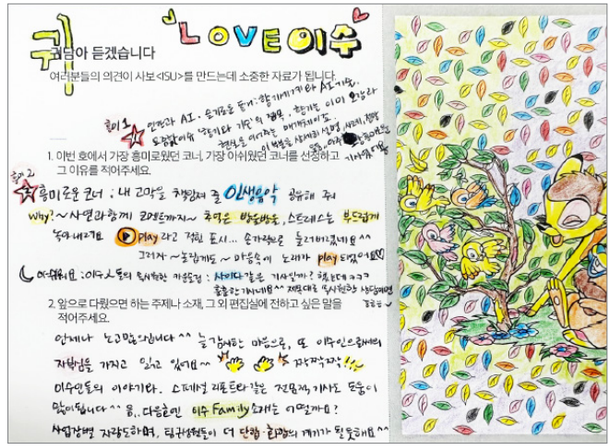
김민석 대리
(이수시스템 HR서비스팀)

마기현 차장
(이수앱지스 제품파트)

문병호 사원
(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생산4파트)

전호균 과장
(이수앱지스 DI파트)

채정국 과장
(이수앱지스 제품파트)



조재진 기정
(이수페타시스_생산1팀 생산2파트)

이수가족을 위한 아트 힐링 컬러링 테라피

컬러링 북은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을 모아 엮은 책으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채워가노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려 정서적인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보 <ISU>는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선사할 컬러링 코너를 연재합니다. 컬러링을 마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 방법

01 컬러링을 한다

02 인증샷을 찍는다

03 사진을 전송한다

보내실 곳 | **카카오톡 ID** : creativekeym / **이메일** : hjkim1@isu.co.kr

2023년 봄호 당첨자
(※가나다순)

김민석 대리(이수시스템 HR서비스팀)
마기현 차장(이수앱지스 제품파트)
문병호 사원(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생산4파트)
전호균 과장(이수앱지스 DI파트)
조재진 기정(이수페타시스_생산1팀 생산2파트)
채정국 과장(이수앱지스 제품파트)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가을호 원고 마감은 9월 15일입니다.

이수의 혁신이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시대를 바꾸는 혁신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도록
미래 핵심기술의 대중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내일의 기술,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NEXT IS U